

정치이념과 친환경 태도: 정치이념의 다차원성을 중심으로*

이서영 | 대전대학교**

박영득 | 충남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인의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정치이념의 다차원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그로 인한 환경재난과 사회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확대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시민들의 친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보다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장이 다수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한국의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수주의 정치이념을 경제와 북한에 대한 태도로 구체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진보와 보수의 단일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정의된 정치이념과 경제에 대한 태도는 친환경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않고,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환경문제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정치이념, 친환경 태도, 기후변화, 정치이념의 다차원성, 대북인식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주저자, 이서영(seralee135@gmail.com)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강사

*** 교신저자, 박영득(youngdeuk@g.cnu.ac.kr)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I. 서론

전 세계에서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폭우, 폭설, 가뭄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가 발표한 「2023년 전 지구 기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45°C 상승하여 역사상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다. 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매년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기록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스위스 빙하는 2021-2022년 2년 동안 10%의 질량이 손실되었다.¹⁾ 캐나다, 하와이,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과 그로인한 대규모의 대기오염이 발생했고, 지중해 등지와 스리랑카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²⁾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재난을 일으키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국제 NGO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후 난민”이 3,18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분쟁이나 정치적 박해로 인해 발생한 난민의 수보다 많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김기봉 2023).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회복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빈곤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박병도 2013, 62)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자명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데,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보았고(김정환·이윤식 2024), 한국은행은 국내 기온이 1°C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0.4-0.5%p 높아지고 전체 소비자물가가 동반 상승한

1)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2024. 「2023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Geneva: WMO.

2) 이선주. 2024. “기후재난의 시대: 대응과 회복을 위한 그린피스 활동.” 그린피스 홈페이지.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30698/blog-ce-act-now-for-climate-disaster/> (2024. 06. 14).

다는 분석을 발표했다(신호경 2024).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대안모색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3)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고,³⁾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중대한 과제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관련 이익집단들의 합의와 조정을 이루어내며,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 환경정책은 기업, 청년, 여성, 노동자, 미디어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지원과 참여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외교부 2023, 6).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 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Ivanova and Tranter 2008; Neumayer 2004)과 정당일체감 또는 정치이념과 같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형성에 정치적 요인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친환경정책에 대한 지지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Dabidovic et al. 2019; Dupont and Bateman 2012; Marquart-Pyatt 2008; McCright et al. 2016; Neumayer 2004). 환경문제의 정치화 경향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물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의 정치화가 구체적으로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국민들의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데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정치이념의 다차원성에 주목

3) IPCC. 2023.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Chapter 11: Weather and Climate Extreme Events in a Changing Climate.” Geneva: IPCC. IPCC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한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cooperation/ipcc.php>(검색일: 2024/6/23).

하여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 중 어떠한 부분이 친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 국가의 경제에 타격을 주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 난민을 양산하고 지구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정치학 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정치학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를 부각시키고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친환경 태도의 결정요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행동”에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적 행동과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집합적 행동이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등이 개인적 환경행동이고, 환경운동단체 가입 및 기부금 납입, 환경보호운동 참여, 환경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는 녹색당에 대한 투표, 환경 관련 세금 납부 등은 집합적 환경행동이다. 집합적 환경행동은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가와 기업이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친환경 태도(environmental concern)”란, 개인이 환경문제를 인지하는 정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정도 혹은 그 문제해결에 개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Dunlap and Jones 2002, 485). 친환경행동과 친환경 태도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 연구는 친환경 태도가 외적인 친환경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환경 태도가 친환경행동을 추동하는 힘이라고 보기도 한다.⁴⁾

4) 친환경 태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왔다. 첫째, 특정 국가 국민들

친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친환경 태도 연구의 주도권을 가진 사회학에서는 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해왔고, 행정학에서는 환경정책 집행에 필요한 세금을 지불할 의사(willing to pay: WTP)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손익이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국가적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친환경 태도를 갖게 되는 심리적 요인과 신념체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정치학계에서 친환경 태도의 사회적 기반에 관한 연구,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이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은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Ivanova and Tranter 2008; Neumayer 2004).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시기별, 국가별로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설명력이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다수 도출되었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편적 이론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시간적·공간적 모수(parameter)를 고려하여 사례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한 국가 안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가계보다 높은 가계가 환경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더 크고, 국민총생산(GNP)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의 국민들의 환경세금 납부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환경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극단적 날씨를 경험하거나, 자

의 친환경 태도의 정도에 관한 연구, 둘째, 친환경적 태도의 시계열적 변화에 관한 연구, 셋째, 서로 다른 국가 국민들이 가지는 친환경 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관한 연구, 넷째,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연재해, 국제기후정상회의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했을 때 환경 친화적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이해, 평가하는 능력이 클수록 정책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커진다는 연구가 있다(문승민 2022, 204).

심리적 측면에서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첫째, 기후변화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믿음, 둘째, 과학적 합의에 대한 인식, 셋째, 기후변화의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 등이다. 여러 심리학적 요인들 중, 기후변화에 관한 염려(worry)가 친환경적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Bouman et al. 2020, 7; Lee et al. 2024, 11). 이 연구결과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교육을 통해 획득한 환경 정보와 지식이 많아지면, 기후변화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위협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반에 관하여,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전쟁을 겪지 않고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탈물질주의 세대’가 환경, 인권 등의 탈이념적 가치와 삶의 질적 향상을 중요시한다고 주장한다 (Inglehart 1977, 1997).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보다 환경친화적일 가능성이 크다.⁵⁾ 반면,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계층이 환경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부유층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빈곤층과 노동계급은 오염된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박병도 2013, 62). 즉, 사회구조적으로 빈곤층이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고, 빈곤층, 노동계층, 유색인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오히려 환경친화적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Dunlap and York 2008,

5) 젊은 세대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원칙상 환경친화적이지만, 생애주기의 특성상,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새로운 가족 형성과 미래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Ivanova and Tranter 2008, 172).

551). 한편, 친환경 태도가 탈물질주의적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2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전국가에서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서도 환경친화적 태도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고(Mostafa 2013, 396), 친환경 태도를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Brechin and Kempton 1994, 260).

한편,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이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환경의 질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보수적인 사람은 경제적 번영에 우선순위를 둔다(Pierce and Lovrich 1980, 280; Wen et al. 2016, 244). 그리고 진보주의자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개혁을 추구하지만 보수주의자는 전통적·위계적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보적 유권자들이 보수적 유권자들보다 친환경법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환경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Dupont and Bateman 2012; Marquart-Pyatt 2008; McCright et al. 2016).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수이념을 가진 사람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진보이념을 가진 사람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다시 말해,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보다 기업에 대한 환경세금 부과, 무역에 관한 환경오염 승인절차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더 적극적이다(Dabidovic et al. 2019; Neumayer 2004). 그리고 정치이념에 따라 대중이 양 진영으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규범적 판단기준을 갖게 되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환경보호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ie and Choma 2018, 248). 이에 더하여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극단적 날씨, 자연재해, 국제기후정상회의와 같은 이벤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Borick and Rabe 2010, 797). 또한 친환경행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진보주의자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억제하고 친환경 태도의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기후변화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

는 것이다(Böhmelt and Zhang 2024; Kenny 2020).

이에 더하여, 환경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이 친환경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이때 정치적 맥락이란,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성향, 정당의 역할,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정부의 질적 수준 등이다. 미국인의 친환경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 대통령 집권기에 국민들의 환경세금 지불의사가 감소하는데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연구가 있다(Johnson and Schwadel 2019, 931). 또한 정부의 부정부패 수준이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국가의 국민들이 정부의 질적 수준이 낮은 국가의 국민들보다 더 환경친화적 태도를 보였다(Davidovic et al. 2019, 691). 같은 맥락에서 김재완과 그 동료들(2019)은 한국에서 내국인집단이 비내국인집단보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액이 높은 이유 중 하나를 내국인집단이 비내국인집단보다 한국정부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Kim et al. 2019, 110). 한국 정치학계에서는 특정 정당의 환경정책을 분석하거나, 녹색운동의 역사와 제도화 과정을 연구하거나, 녹색당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추적한 연구는 있지만(민병기 2017; 장혜영 2014; 정하운·신두철 2012), 유권자의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정수현 2015). 기존연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 연구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변인을 추가하여 한국 국민의 친환경 태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 가설

환경문제는 인류 모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문제이며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인류 전체가 큰 위협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비정치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인 환경운동연합 결성 초기에 오세훈, 이학재 등 보수계 정치인들도 활동했던 것을 떠올려본다면 환경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쟁점이라고 보기 어

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문제에는 정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도 낮은 편이다(Dupon and Bateman 2012; Falkenberg et al. 2022; Marquart-Pyatt 2008; McCright and Dunlap 2011; McCright et al. 2016).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정치이념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정치이념을 진보-보수의 단일 차원으로 축약하여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이념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 정치이념의 다차원성은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 중 어떤 차원이 친환경 태도와 친환경행동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달리 말하면, 보수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친환경 태도가 낮고 친환경행동을 할 의향이 진보이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낮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어떠한 내용 때문인가? 경제적 차원에서 보수주의적인 사람이 환경정책에 반대하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환경정책에 반대하는 것인가? 본 연구는 정치이념을 진보-보수로 구분되는 단일차원이 아닌 다양한 이슈차원이 공존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정치이념의 어떠한 차원이 친환경정책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하 WTP)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정치이념은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인지를 인도한다. 정치이념은 인간사회에서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사회적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내적인 체계성을 갖춘 진술들의 결합체이다(Hinich and Munger 1994). 사람은 어떠한 이념을 가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이상향을 그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어떤 수단을 옳거나 그르다고 생각할 것인지, 어떤 수단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른 신념을 갖게 된다. 환경을 위해 발전을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러한 질문

들에 무엇이라 답할지는 각자의 마음속에 어떠한 이념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정치이념은 보수-진보라고 표현하는 단일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차원적인 속성을 갖는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모두 가능하다. 예컨대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소수파의 발언권을 확대할 것인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협소하게 인정할 것인지 등이 논쟁이 될 수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할 것인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이민 확대, 동성혼 합법화 등 사회적 다양성 확대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태도가 이념적 대립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다.

즉 보수적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러 이슈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수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단일차원으로 요약된 보수-진보의 이념구분에서 보수적인 유권자 가운데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면서도 사회적 영역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Zaller 1992). 요컨대 추상적인 차원의 보수적 이념을 구체적인 이슈로 분할한다면 단일차원으로 축약된 정치 이념상으로는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경제적 차원에서 이념적 대립은 대개 기업의 자유확대와 정부의 규제 확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인간의 생산활동이라 할 수 있다(Crowley 2000).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을 인간의 활동이라고 보는데 동의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생산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업에 친환경적인 생산방식 도입을 강제하거나 기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데 제

제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규제에도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보수적 이념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에 찬성하기를 꺼릴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의 인하를 지지하고 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에 비해 환경친화적 태도가 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1: 경제적 차원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응답자는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응답자에 비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약할 것이다.

이념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보통 경제, 사회문화, 정치가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이슈영역이라고 본다(Albright 2010; Klar 2014).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이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같이(Hooghe and Marks 2017; Kriesi et al. 2006) 각 국가별로 특수한 정치적 균열을 자아내는 이슈영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한국정치의 이념적 균열구도에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였고 냉전질서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반공주의는 한국의 정치구조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보수정치세력과 보수주의가 구성되는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홍태영 2019; 2020). 분단이 만들어낸 냉전적 구조는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식과 대안을 협소하게 만들었다(이정길 2013; 최장집 2004). 이러한 정치적 구조 속에서 진보적 문제의식과 대안이 한국 사회에 수용되기는 어려웠다.

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한국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 선거에서의 투표선택 등 정치적 인식 및 행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경미 외 2012; 류재성 2019; 조성대 2008; 최효노 2018). 특히 조성대(2008)는 북한에 관련된 태도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주요한 정치적 경쟁과 갈등구조를 조형하는 갈등 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북한에 관한 태도는 한국정치의 갈등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적 갈등 축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서 반공주의는 보수주의와 긴밀히 연결되었으며(홍태영 2020) 반공주의와 연결된 강한 보수정파적 태도는 각종 이슈를 진영리에 따라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Bolsen et al. 2014). 환경의제가 진보성향 정당이나 단체가 주장하는 의제로 인식될 경우, 반공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환경의제를 순수히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도구로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환경운동의 정치화 과정에서 환경운동은 진보적 의제와 결합했다. 2000년 총선에서 주요 환경단체들은 진보성향의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여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였고 일자리, 복지, 생태, 평화를 중심에 둔 운동을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한편 2010년 지방선거에서 환경운동단체는 2010년 지방선거를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4대강을 저지하기 위한 선거’로 규정하고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탈핵, 평화, 인권 등 환경이라는 고유 의제 외에도 다양한 진보적 의제를 내세웠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성된 녹색정치포럼도 소수자인권 보호 등의 진보적 의제와 함께 환경을 정치의제화 하였다(정하윤·신두철 2012).

최근 22대 총선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은 79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및 소수자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보적 의제를 내세웠다. 특히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 들어 더 뚜렷하게 정치화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정당들은 탈원전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정파간 논쟁이 붙었다(오창우·송형석, 2020).

환경이라는 쟁점이 정치적 진영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의 환경정책, 환경단체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과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경에 관련된 정책이 주로 진보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나 정당에 의해서 제기되어 환경이 진보의 의제로 인식될 경우, 진보 진영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은 환경의제를 자신이 반감을 가지는 진보 진영의 의제라는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2: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지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약할 것이다.

Ⅲ. 데이터 분석

1) 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비용을 지불할 의향, 즉 환경친화적 행동 의향에 정치이념의 여러 차원 중 어떠한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를 활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에 관한 폭넓은 핵심 문항 세트를 가지고 있는 조사이며 2021년 조사에는 본 연구의 핵심 관심변인인 환경친화적 행동 의향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는 데이터셋이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할 의향을 질문했다. 이 문항들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는 경제와 북한 이슈에 대한 태도이다. 이 변수들은 모두 이분형(binary)으로 측정되었으며 경제는 국가의 기업 경제활동 간섭에 찬성/반대 하는지를, 북한에 관련해서는 북한은 협력대상인지 위협대상인지의 인식 여부로 측정됐다. 이 변수들은 모두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응답을 1로, 진보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응답을 0으로 지정하였다.

환경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심변인 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인 특성(Ivanova and Tranter 2008; Neumayer 2004)과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Bouman et al. 2020, 7; Lee et al. 2024, 11)이 포함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세계의 기후는 변화하지 않았다(기후변화 사실 부정)’, ‘세계의 기후는 대부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하였다’, ‘세계의 기후는 자연적인 현상과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다.’ ‘세계의 기후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 때문에 발생하였다’로 측정된 변수이다. 이를 기후변화 사실 및 기후변화 원인에서 인간의 활동을 부정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이분형 변인으로 변환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기후변화가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를 10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순위척도로 측정되어 있으므로 분석방법으로는 순위로

지스틱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종속변수에 대하여 통제변수들만이 포함된 기본 모형(baseline model)과 본 연구가 제시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한 주모형(main model)을 각각 핵심 독립변수인 이슈태도의 영향력과 기본 모형과 주모형의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이슈태도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을 때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데이터 분석

아래 <표 1>은 본 연구의 핵심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 및 세금 지불 의향의 분포를 살펴보면 약 두 변수 모두에서 약 33% 가량이 중립적인 응답을 선택했고,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응답은 약 45%,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응답은 약 38% 가량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용 및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의 응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응답자의 45.68%,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54.32%로 나타났고 경제부문에 있어서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45.7%, 기업활동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은 54.3%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빈도수(%)
비용 지불 의향	매우 의향이 있다	47(3.91)
	약간 의향이 있다	499(41.48)
	있지도, 없지도 않다	404(33.58)
	별로 의향이 없다	213(17.71)
	전혀 의향이 없다	40(3.33)
세금 지불 의향	매우 의향이 있다	26(2.17)

	약간 의향이 있다	431(35.95)
	있지도, 없지도 않다	396(33.03)
	별로 의향이 없다	271(22.60)
	전혀 의향이 없다	75(6.26)
북한에 대한 태도	위협대상	523(45.68)
	협력대상	622(54.32)
경제에 대한 태도	기업활동 개입 찬성	515(45.70)
	기업활동 개입 반대	612(54.30)

본 연구의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두 종속변수에 대하여 각각 2가지의 모형을 분석했다. 아래 <표 2>에 제시된 모델1과 모델3은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이슈태도를 제외하고 통제변수들만을 포함한 기본 모형이고, 모델2와 모델4가 핵심 설명변수가 포함된 본 모형들이다. 기본 모형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정치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를 더 많이 걱정할수록 환경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할 의향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세금납부 의향에 대한 모델에서 이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결과를 통해보면 최소한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3과 모델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변수들 중 정치이념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지한 가운데,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환경친화적 태도의 결정요인

		비용 지불 의향		세금 지불 의향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연령		0.006 (0.005)	0.005 (0.005)	0.008 (0.005)	0.008 (0.005)
성별(여성)		-0.062 (0.118)	-0.058 (0.122)	-0.066 (0.116)	-0.050 (0.120)
소득		0.037** (0.013)	0.035** (0.013)	0.038** (0.012)	0.036** (0.013)
교육수준		0.263*** (0.052)	0.269*** (0.054)	0.238*** (0.051)	0.233*** (0.053)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0.792*** (0.079)	0.782*** (0.082)	0.643*** (0.076)	0.637*** (0.079)
기후변화에 의한 한국 영향 인식		-0.031 (0.027)	-0.030 (0.028)	0.005 (0.027)	0.010 (0.028)
기후변화 긍정		-0.203 (0.158)	-0.254 (0.164)	-0.070 (0.155)	-0.120 (0.160)
정치이념(보수)		-0.126* (0.063)	-0.105 (0.066)	-0.095 (0.062)	-0.068 (0.065)
이슈 태도	경제 (기업활동자유)		0.075 (0.120)		-0.204 (0.119)
	북한 (위협대상)		-0.367** (0.122)		-0.294* (0.120)
관측수		1,037	1012	1,033	1,009

* p<0.05, ** p<0.01, *** p<0.001

표기된 값은 회귀계수이며, 괄호 안은 계수의 표준오차임. 절삭점(cut point)는 생략하였음.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가 비용 및 세금 지불 의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명변수의 값에 따른 예측확률을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중요한 관심사에서 벗어난 중립적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에 해당하는 예측확률만을 살펴본다. 아래 <표 3>은 북한에 대

한 태도의 값에 따라 두 종속변수의 각 수준에 해당할 확률을 보여준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 부정적인 비용 및 세금 지불의향(전혀 의향이 없다, 별로 의향이 없다)은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예측확률을 보이고, 긍정적인 지불의향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협대상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지불의향을 보인다. 이는 계수의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별로 의향이 없다’와 ‘약간 의향이 있다’는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5%p 가량으로 실질적인 효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3〉 북한에 대한 태도에 따른 종속변수의 예측확률

	비용 지불 의향				세금 지불 의향			
	전혀	별로	약간	매우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북한은 위협대상	3.7%	19.6%	39.9%	3.3%	5.9%	24.3%	35.1%	1.9%
북한은 지원대상	2.6%	15.3%	46.5%	4.7%	4.5%	20.4%	40.9%	2.6%

분석결과에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은 비용 지불 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진보와 보수의 축으로 측정된 정치이념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이슈에 대한 태도 변수들이 투입되면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새로 투입된 북한에 대한 태도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모형에서 나타났던 정치이념의 영향력은 이슈태도 변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환경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은 외견상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는 정치이념에 의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보/보수이념 자체나 경제영역에서의 진보적, 또는 보수적 태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비용 및 세금 지불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박경미와 그의 동료들(2012)도 북한에 대한 태도와 같은 정치적 문제를 통해 이념을 인식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는 환경문제에 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 분석 또한 유사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환경문제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의 다양한 결정요인 가운데 정치이념에 주목하였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친환경정책에 대한 지지도 낮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적 정치이념의 어떠한 내용이 환경문제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낮추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정치이념을 경제적 차원과, 한국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북한에 대한 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이슈차원에 대한 입장이 친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02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이슈차원이 동시에 고려될 경우 정치이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은 반면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환경문제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한국정치의 진영대립을 규정하는 갈등축에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조성대 2008)는 것을 고려해보면, 부정적 친환경 태도는 보수주의적 경제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진영대립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정치이념이 중요하다고 보는 기존의 설명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단순히 보수적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환경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험분석의 결과는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을 못하고 있거나, 환경정책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보다는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이들에 대한

반감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 기초하여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보자면, 환경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미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만큼이나, 환경운동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환경문제의 정치화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상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에 수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는 건강과 환경을 핵심모듈로 하는 조사로서 본 연구에서 중요한 환경에 관한 다양한 태도들을 측정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치적 인식이나 정치행태에 관한 문항이 불충분하여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와 북한에 대한 태도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와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각각 하나의 측정문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다수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타당성을 높이는 어려웠다. 향후 환경에 관한 태도와 정치 관련 문항을 포괄하는 독자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본 연구의 주장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류재성. 2019. “정치이념의 구성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 유권자는 왜 자신을 보수 혹은 진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정보연구』 22권 2호, 91-120.
- 문승민. 202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정책 리더러 시와 정책 만족도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31권 4호, 179-213.
- 민병기. 2017. “사회운동 기반의 정당 등장과 정치적 기회구조: 민주노동당과 녹색당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51집 1호, 207-231.
- 박경미, 한정택, 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127-150.
- 박병도. 2013.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환경법연구』 35권 2호, 61-94.
- 오창우, 송형석. 2020. “‘환경’이슈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정권별 ‘원전’의 정책적 활용에 따른 의미연결망의 차이.” 『한국사회과학연구』 39권 2호, 83-125.
- 이정길. 2013. “남북 분단이 한국의 체제 변동기에 미친 영향: 1961년, 1980년, 1987년의 담론특성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321-339.
- 장혜영. 2014. “1972년-2012년 공화당과 민주당의 환경정책 정강의 비교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4권 3호, 575-603.
- 정수현. 2015.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의정연구』 21권 2호, 201-231.
- 정하윤·신두철. 2012.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의 기회구조에 관한 연구: 녹색운동과 녹색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6집 4호, 101-128.
- 조성대.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69-198.
- 최장집. 200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서울: 후마니타스.
- 최효노. 2018. “한국 유권자의 이슈태도: 경제 및 복지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미분화와 다차원성.” 『한국정당학회보』 17권 4호, 121-150.
- 홍태영. 2019.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만들기: 해방 이후 남한에서 반공과 경제개발 주체로서 ‘국민’의 탄생.” 『문화와 정치』 6권 2호, 101-138.

홍태영. 2020. “남한에서 국민국가 형성과 보수세력 및 보수주의의 구성: 보수혁명으로서의 민족주의.” 『한국정치학회보』 54집 1호, 111-135.

Albright, Jeremy J. 2010.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Party Competition.” *Party Politics* 16(6): 699-719.

Böhmelt, Tobias and Muzhou Zhang. 2024. “Suppor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n Good and Bad Economic Circumstances.” *Environmental Politics* 33(2): 302-320.

Bolsen, Toby, James J. Druckman, Fay Lomax Cook. 2014. “The Influence of Partisan Motivated Reasoning on Public Opinion.” *Political Behavior* 36: 235-262.

Borick, Christopher and Barry Rabe. 2010. “A Reason to Believe: Examin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Individual Views on Global Warming.” *Social Science Quarterly* 91(3): 777-800.

Bouman, Thijs, Mark Verschoor, Casper Albers, Gisela Böhm, Stephen Fisher, Wouter Poortinga, Lorraine Whitmarsh and Linda Steg. 2020. “When Worry about Climate Change Leads to Climate Action: How Values, Worry and Personal Responsibility Relate to Various Climate Action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62: 1-11.

Brechin, Steven and Willett Kempton. 1994. “Global Environmentalism: A Challenge to the Postmaterialism Thesis?” *Social Science Quarterly* 75(2): 245-269.

Crowley, Thomas J. 2000. “Causes of Climate Change Over the Past 1000 Years.” *Science* 289: 270-277.

Currie, Shannon and Becky Choma. 2018. “Sociopolitical Ideology and the Morality of Green Behaviour.” *Environmental Politics* 27(2): 247-266.

Davidovic, Dragana, Niklas Haring and Sverker Jagers. 2019. “The Contingent Effects of Environmental Concern and Ideology: Institutional Context and People’s Willingness to Pay Environmental Taxes.” *Environmental Politics* 29(4): 674-696.

- Dunlap, Riley and Robert Jones. 2002. "Environmental Concern: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In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edited by Riley Dunlap and William Michelson, 482-524.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Dunlap, Riley and Richard York 2008. "The Globalization of Environmental Concern and The Limits of The Postmaterialist Values Explanation: Evidence from Four Multinational Surveys." *The Sociological Quarterly* 49(3): 529-563.
- Dupont, Diane and Ian Bateman. 2012. "Political Affiliation and Willingness to Pay: An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Benefits and Means of Provision." *Ecological Economics* 75: 43-51.
- Falkenberg, Max, Alessandro Galeazzi, Maddalena Torricelli, Nicollo Di Marco, Francesca Larosa, Madalina Sas, Amin Mekacher, Warren Pearce, Fabiana Zollo, Walter Quattrociochi, and Andrea Baronchelli. 2022. "Growing Polarization around Climate Change on Social Media." *Nature Climate Change*, 12. 1114-1121.
- Hinich, Melvin J. and Michael C. Munger. 1994. *Ideology and the Theory of Political Choi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ooghe, Lisbet and Gary Marks. 2018. "Cleavage Theory Meets Europe's Crisis: Lipset, Rokkan, and the Transnational Cleavag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5(1): 109-135.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vanova, Galina and Bruce Tranter. 2008. "Pay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2): 169-188.

- Johnson, Erik and Philip Schwadel. 2019. "Political Polarization and Long-term Change in Public Support for Environmental Spending." *Social Forces* 98(2): 915-941.
- Kenny, John. 2020. "Economic Conditions and Support for the Prioritis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uring the Great Recession." *Environmental Politics* 29(6): 937-958.
- Kim, Jaewan, Taeyong Jung, Taedong Lee and Dong Kun Lee. 2019. "Analysis on Socio-cultural Aspect of Willingness to Pay for Air Quality (PM10, PM2.5) Improvement in Seoul." 『환경영향평가』 28권 2호, 101-112.
- Klar, Samara. 2014. "A Multidimensional Study of Ideological Preferences and Priorities among the American Public." *Public Opinion Quarterly*, 78(Special Issue): 344-359.
- Kriesi, Hanspeter, Edgar Grande, Romain Lachat, Martin Dolezal Simon Bornschie, and Thimotheos Frey. 2006. "Global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Political Spaces: Six European Countries Compare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921-956.
- Lee, Sanguk, Matthew Goldberg, Seth Rosenthal, Edward Maibach, John Kotcher and Anthony Leiserowit. 2024. "Climate Change Belief Systems across Political Groups in the United States." *PLOS ONE* 19(3): 1-16.
- Marquart-Pyatt, Sandra. 2008. "Are there Similar Sources of Environmental Concern? Comparing Industrialized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89(5): 1312-1335.
- McCright, Aaron M, Riley E. Dunlap. 2011. "The Politic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s Views of Global Warming, 2001-2010." *The Sociological Quarterly*, 52: 155-194.
- McCright, Aaron M, Riley Dunlap and Sandra Marquart-Pyatt. 2016. "Political Ideology and Views about Climate Change in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olitics* 25(2): 338-358.

- Mostafa, Mohamed. 2013. "Wealth, Post-materialism and Consumers' Pro-environmental Intention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25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21: 385-399.
- Neumayer, Eric. 2004. "The Environment, Left-wing Political Orientation and Ecological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51: 167-175.
- Pierce, John and Nicholas Lovrich. 1980. "Belief Systems Concerning the Environment: The General Public, Attentive Publics, and State Legislators." *Political Behavior* 2(3): 259-286.
- Wen, Jun, Yu Hao, Gen-Fu Feng and Chun-Ping Chang. 2016. "Does Government Ideology Influe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Evidence Based on a New Dataset." *Economic Systems* 40: 232-246.
- Zaller, John.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기사 및 보고서

- 김기봉. 2023. "기후 위기 가속화...재난으로 빼앗긴 삶 '기후 난민.'" 『YTN 사이언스』(11월 7일).
- 김정환·이윤식. 2024. "韓온난화 속도 세계 평균의 3배...농산물값 변동성 '최고.'" 『매일경제』(6월 23일).
- 신호경. 2024. "한은 "폭염 등에 1℃ 오르면 농산물 물가상승률 0.4~0.5%p↑"." 『연합뉴스』(6월 18일).
-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2024. 「2023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 Geneve: WMO.
- 이선주. 2024. "기후재난의 시대: 대응과 회복을 위한 그린피스 활동."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30698/blog-ce-act-now-for-climate-disaster/>(검색일: 2024.06.14).
- 외교부. 202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승인."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4832023(검색

일: 2024.06.14)

IPCC. 2023.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Chapter 11: Weather and Climate Extreme Events in a Changing Climate.” Geneva: IPCC.

투고일: 2024.06.25.	심사일: 2024.07.22.	게재확정일: 2024.07.22.
------------------	------------------	--------------------

Political Ideology and Green Attitudes: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Political Ideology

Lee, Seoyoung | Daejeon University

Park, Youngdeuk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factors determining the green attitudes of Koreans,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heatwaves, floods, and droughts due to climate change are occurring worldwide, leading to environmental disasters and increasing socio-economic damage,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and implement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citizens' green attitud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by specifying it in terms of attitudes towards the economy and North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ness of division of Korea. We find that attitudes towards the economy and political ideology defined along a single ideological spectrum of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green attitudes. Instead, our finding reveals that people who perceive North Korea as a threat are less willing to pay for environmental issues than those who perceive it as a partner for cooperation.

Key Words | Political Ideology, Green Attitudes, Climate Change, Multidimensionality of Political Ideology, Perceptions of North Korea